

신춘문예

<14면서 계속>

까 무릎 짚어 들었다. 갑자기 써늘한 냉기가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만날 찻고 자라는 형의 잔소리인 줄 알고 손을 저어 뿌리쳤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은 형이 아니었다. "어쭙, 누군데 남의 구역역을 침범하고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나?" 겁이 더러 낫지만 부스스 일어났다.

상식은 잔뜩 벋르고 있었던 눈치였다.

상식이 뒤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아, 베트남 아지메네 이민우 도련님시구만."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싸움꾼으로 소문이 자자한 상식이였다. 상식은 변했다. 어렸을 때 수줍은 말단 내 친구 상식이 아니다. 활짝처럼 불어서 찡가와 늘던 상식은 이제 없다. 술에 절어 사는 아빠가 싫다며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상식은 날이면 날마다 울었다. 엄마 내어 놓으라고 박박 우기면서, 울다가 아빠에게 맞고 우리집으로 도망 온 날도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파지를 쥘는 상식을 몇 번 본 뒤로 아빠는 박스를 모아 두었다가 상식이 할머니께 가져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든 상식은 달라고 있었다.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나쁜 형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이가 꽤 버린 것 같았다.

상식은 잔뜩 벋르고 있었던 눈치였다. 상식이 뒤에는 서너 명의 아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아, 김삼식 여자가 어쨌서 네 구역이야?"

여기는 우리의 아지트였다. 최소한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구역? 구역은 내가 정해."

상식은 제법 건달 흉내를 내고 있었다. 제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아 화풀이를 할 모양이었다.

얼마 전부터 상식은 나를 볼 때마다 귀찮게 했다. 클럽에 들어오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돈까지 벌게 해 줄 수 있다고 꼬드겼다. 그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상식을 무시했다.

"그놈 베트남 엄마 미인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라."

또야씨 이야기가 상식이 입에서 나오자 반지를 버린 생각이 나면서 짜증이 울려 치밀었다.

"..."

"한판 불고 싶은 표정인데."

나는 먹이를 본 맹수처럼 상식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살짝 몸을 트는 상식이 옆으로 펄 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눈앞에 별이 무수히 떠올랐다. 상식은 뒤에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눈짓을 하고 한 발 물러섰다. 사나운 발길과 함께

떨떨떨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었다.

눈을 떴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냄새가 분명했다. 달짝지근한 엄마냄새가. 숨을 한껏 들이쉬어 엄마냄새를 깊이 삼켰다. 역시 엄마냄새가 틀림없었다. 걱정이 모두 사라져 버린 듯 흥분했다. 다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또야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에 물수건이 올려 진 걸 봐서는 아찔한 모양이다. 또야씨를 보자 하수구에 버린 반지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몸을 벌떡 일으켰지만 '아구구' 소리와 함께 다시 누워버렸다.

"또야씨 NO, 나 호아셴이다."

물이 툭툭 떨어지는 수건을 짜던

또야씨가 손을 멈추고 말했다.

"미우, 베트남 쪽이요."

모름으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또야씨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손가락을 빼앗아 한 손가락 쪽 펄어 입속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베트남 죽은 엄마가만 들어 주던 김치죽과 냄새도 맛도 향기도 똑같았다. 아니 전혀 달랐다. 하지만 똑같은 거나 다름없었다.

형에게서 손가락을 빼앗아 죽을 먹기 시작했다.

아빠는 죽 그릇을 무릎 쪽으로 바짝 들이밀며 손가락을 쥐여 주었다. 죽을 본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분명히 엄마가 끓이던 김치죽 냄새였는데 부름에 울려져 있는 것은 처음 본 죽이었다.

"아빠, 김치죽 아니었어?"

아빠는 또야씨를 슬쩍 쳐다보았다.

갑치를 종종 썰어 넣고 만든 엄마표 김치죽. 가끔은 나도 소고기가 죽이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해서 얻어 먹어보기도 했지만 감기는 늘 엄마가 만든 김치죽을 먹어야만 나았다.

형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민우야, 너 편찮은 거지, 그렇지?"

형은 끼어있는 나를 보자 안심이 된 듯했다. 걱정을 많이 했는지 눈이 쾅쾅 젖어 있었다.

"형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너 또야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화가 나서 웅하니 나가자 또야씨가 뒤따라오다가 상식이 패거리에게 맞고 쓰러진 것을 보고 아빠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또야씨 NO, 나 호아셴이다."

물이 툭툭 떨어지는 수건을 짜던 또야씨가 손을 멈추고 말했다.

형과 내 눈이 공중에서 만나 불꽃을 일으켰다. 앉아있던 형이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고 일어났다. 우리는 서로 말하고 있었다.

"뭐야, 우리말을 알아들은 거야?"

또야씨는 빙그레 웃더니 왼손 약지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그사이 영문을 모르는 형은 엉덩이를 슬그머니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다. 반지를 본 순간 나아말로 천정을 뚫고 나가고 싶은 마음과 안도의 긴 한숨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는 죽 그릇을 무릎 쪽으로 바짝 들이밀며 손가락을 쥐여 주었다. 죽을 본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분명히 엄마가 끓이던 김치죽 냄새였는데 부름에 울려져 있는 것은 처음 본 죽이었다.

"아빠, 김치죽 아니었어?"

아빠는 또야씨를 슬쩍 쳐다보았다.

간절히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져

최선을 다해 쓰고 또 써 볼 뿐

■ 동화 당선소감



정인순

▲1966년 고흥 출생
▲광주여성 졸업

늘 간절히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마루에 엎드려 처음으로 동화를 썼다. 제목은 '곰돌이의 여행'이었는데 그 시절 인기작이었던 '엄마 찾아 삼바리'를 살짝 패러디 한 것이었다. 곰돌이가 긴 장대 끝에 보파리를 묶어, 어깨에 짊어지고 엄마 찾아 집을 떠나는 삼바리까지 넣고 나와 내심 호탕했다. 공책을 들고 제일 많이 따르던 둘째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큰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게 뭐 동화냐?' 단 한마디로 일축하는 언니의 말에 당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처음 동화공부를 시작했을 때, 문득 어린 날 언니에게서 받은 충격이 고운 영상으로 되살아났다. 아릿한 그리움이 되어서.

안절옥 선생님께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늘 웃으면서 수업해 주신 선생님과 따끔한 지적 잊지 않고 해 준 동기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오지 2기생들과 문순대 교수님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리고 같은이 되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더 없이 행복하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임에 틀림없다. 행복과 함께 친구처럼 붙어 다니는 고통과도 더 친하게 지내 볼 생각이.

그리고 가슴속에 쌓여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말간 모습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써 볼 욕망이다.

늘 처음처럼, 동화를 시작했을 때 마음 읽지 않도록.

이주여성 소재 선정 신선

부정확한 문장은 거슬러

■ 동화 심사평

본심에 꽤 여러 작품이 올라왔으나 제재나 형식이 다양하지는 않았다. 화법이나 인물 설정도 전체적으로 낮은 인상이었다. 널리 알려진 작품을 고스란히 베껴낸 작품이 본심에 올라와 놀라기도 했다. 글이란 진실을 관통하는 데에 생명력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동화니까 유아적 태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의도적으로 교훈을 담으려는 태도는 옳지 못했다. 그럼에도 답답하는 우리 삶을 어린이의 눈을 통해 그려내고자 노력한 작품들이 있어 당선작을 고르는데 좀 고민을 했다.

노출화의 '백조 왕자'는 남자 주인공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야기다. 우리 아동문학에서 직접 다루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시도가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밋을 부린 문장, 설명위주의 평면적 구성이 가독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주인공보다 엄마의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 이야기가 끝났어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꽤 버거웠고, 독자를 불안하게 한다.

당선작인 정인순의 '또야 또야'는 베트남 여성이 균열된 어떤 가정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생오지의 흔적을 담은 웃음로나마 붙잡아두려는 주인공과 만만찮은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음식을 장만하는 또야 또야 엄마의 대비가 흥미롭

다. '또야또'가 아니라 '호아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작가는 이 여성이 주제적인 인물임,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러나 부정확한 문장들이 자주 거슬린다. 우리말이 서투르고 아이들에게까지 무시당하던 또야 또야 엄마가 불량배들에게 당하던 주인공을 어떻게 구해냈는지도 의문이다. 사회적인 이슈를 글감으로 삼을 때 필수품 감상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더 많이 습작하고 표현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황선미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광주대 문예창작과,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 ▲1995년 단편 '구슬아, 구슬아'로 아동문학평론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문단 데뷔 ▲1997년 제1회 탐라문학상, 2003년 제3회 세종아동문학상 수상. ▲'마담을 나온 암탉' '까치우는 아침'

'내 푸른 자전거' '앵초의 노란 집' '삼마를 몽땅깨비' 등 다수.

대인동심부동산
(대) 223-1140, 5210, 011-60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금보부동산건설
(대) 261-8949, 011-602-2233
▶ 신축임대
▶ 원룸부지매매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완지구 상업용지
월간지구 상업용지
주요소
650평 35억 600평 18억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8-0115
매매
토지구획
● 신축 좋은 아파트 단지 상가
● 월장용지

금당부동산
(062)223-7400, 010-632-5659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 이하